

보성군, 청년 경제활동 부담 해소 팔 걷었다

고향사랑기금 활용 '청년 드림-업 프로젝트' 추진 1인당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창업 단계별 지원

보성군은 청년들의 취업·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군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성 청년 드림-업(DREAM-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000만원(고향사랑기금 100%)이

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50만원이며, 역량강화지원금 최대 20만원, 취업·창업 활동지원금 최대 30만원, 취업성공지원금 20만원으로 구성된다.

'역량강화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익·토플·토픽 등 공인 어학 시험 응시료를 1인당 연간 총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대 3회까지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취업·창업 활동지원금'은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미취득자와 사업자등록 미비유자를 대상으로 하

며, 취업 관련 면접 준비 비용, 취업 교재 구매비, 창업 실무교육비, 전문가 상담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30만원이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신청 가능하다. 증명사진 촬영, 취업 컨설팅, 창업 교육 수강, 창업 관련 도서 구매 등 실제 취업·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폭넓게 인정한다.

'취업성공지원금'은 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에게 2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하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본인 사업장 취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매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 증명,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거주 기간, 나이, 취업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신청 월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취업성공지원금은 취업·창업 활동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 중 하나가 각종 시험 응시료와 준비 비용이다"며 "이번 보성 청년 DREAM-UP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순천 산림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순천시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신고 대상은 주요 산림계곡 주변 일대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방갈로, 가설건축물, 각종 적치물 등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이는 일반인과 영소 구분 없이 적용되며 사유림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산지훼손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간 내에 불법시설물을 자진 신고하고 원상복구 의사를 밝힐 경우, 시는 원활한 정비를 위해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스스로 철거를 완료하면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단, 식당이 계곡 주변에 평상을 설치하는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일대를 훼손한 불법시설물은 정부 지침에 따라 철거유에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시는 사의를 위해 공공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없이 즉각적인 단속과 철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철거에 불응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는 경우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강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시가 해비치로 달빛해변 야간관광 콘텐츠 '달빛365'를 확대 운영하며 야간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사진제공=광양시장

광양, '해비치로 달빛해변' 야간관광 활성화 속도

6~10월 매월 둘째·넷째 금·토요일 운영

광양시가 해비치로 달빛해변 야간관광 콘텐츠 '달빛365'를 확대 운영하며 야간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3~5월 시범 운영한 '달빛 365 불금day'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까지 운영일을 기존 둘째·넷째 금요일(월 2회)에서 둘째·넷째 금·토요일(월 4회)로 확대한다. 지난 2월 27일 개장한 해비치로 달빛해변은 광양만을 품은 수변 경관과 야간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푸드트럭과 버스킹 공연 등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야간 프로그램 '달빛365 불금day'를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과 플라마켓이 운영되며, 버스킹 공연이 더해져 광양만의 야경과 함께 야간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비 인력을 배치해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등

방문객 편의 향상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는 광양관광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달빛365'를 홍보하고, 지역 상권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달빛365 확대 운영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해비치로 달빛해변을 중심으로 한 야간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머물고 싶은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정기명 여수시장, 섬박람회 현장 살펴 공정률 77%·7월 말 준공 목표 순항... 개막 준비 총력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를 방문해 행사장 조성 현황과 성공 개척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섬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국·소·단장, 조직위원회 본부장, 관계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행사장 현장을 둘러보며 공정 추진 상황과 주요 시설별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교통·환경정비 등 개막 전까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현재 주행사장 전체 공정률은 77%로, 주요 시설별로는 열린문화공간 94%, 주제섬(랜드마크) 65%, 실외정원 74%, 전시관(TFS 텐트 구조물)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주요 시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주관부서와 기반시설 공사도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다.

여수시는 모든 시설·전시 공사를 7월 말까지 완료하고, 8월 시범운영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행사장 주변 환경정비와 교통 및 주차대책, 해상교통망 구축, 진철·청결·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 등 손님맞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기명 시장은 "주행사장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도 철저한 공정 관리를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관광수용태세까지 꼼꼼히 준비해 세계인이 찾는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를 방문해 행사장 조성 현황과 성공 개척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지리산 식물세밀화 공모전 구례, 내달 23~29일 접수

구례군은 지리산 자생식물의 식물자원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제4회 지리산 식물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지리산에 자생하는 식물세밀화이며, 공모 자격은 전국의 청소년 및 성인이다. 접수 기간은 7월 23일부터 29일까지로 출품비는 무료다.

참가자는 신청서 등 서류와 작품을 지참해 한국암화박물관(전남 구례군 구례읍 동산길 29)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24점의 우수작을 선정해 총 시상금 73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추후 구례 식물세밀화전시관에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시상식은 대한민국암화대전 시상식과 연계해 진행될 계획이다. 구례=김귀진 기자

곡성 멜론, 올해 첫 싱가포르 식탁 공략한다

곡성농협 APC서 상차식 개최 홍콩 등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

곡성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곡성 멜론이 올해 첫 해외 수출길에 오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8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곡성농협 농산물산자유통센터(APC)에서 곡성 멜론의 첫 싱가포르 수출 상차식을 개최하고 수출을 위한 선적을 완료했다.

상차식에는 곡성농협, 농협중앙회, 멜론 재배농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곡성 멜론의 첫 수출을 축하하고 해외 시장 확대를 기원했다.

이번 수출 물량은 4t 규모(8kg 500박스)로 수출 금액은 약 1900만원이다. 수출된 멜론은 부산항을 거쳐 싱가포르 현지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곡성은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 비옥한 토양 등 멜론 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높은 당도와 우수한 품질의 멜론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곡성군은 최근 곡성농협 농산물산자유통센터(APC)에서 곡성 멜론의 첫 싱가포르 수출 상차식을 개최하고 수출을 위한 선적을 완료했다. 사진제공=곡성군청

특히, 곡성 멜론은 소비자들로부터 프리미엄 과일로 인정받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군은 이번 싱가포르 수출을 시작으로 홍콩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 멜론의 우수한 품질이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며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곡성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mwes1@gwangnam.co.kr

고흥, 인재 해외유학 지원사업 접수 연장 30일까지 신청 가능...연간 3000만원 지원

고흥군은 지역 전략산업을 이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고흥군 미래인재 해외유학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사업은 우주항공·드론 및 스마트농수축산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대학 석·박사 과정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1명씩 총 2명을 선발한다.

해당 분야의 학업 및 연구계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학생에게는 연간 300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6000만원의 해외 유학비가 지원된다.

군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

항공산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수축산 등 지역 전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충군 여성가족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전문인재 양성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해외의 선진 교육·연구 환경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